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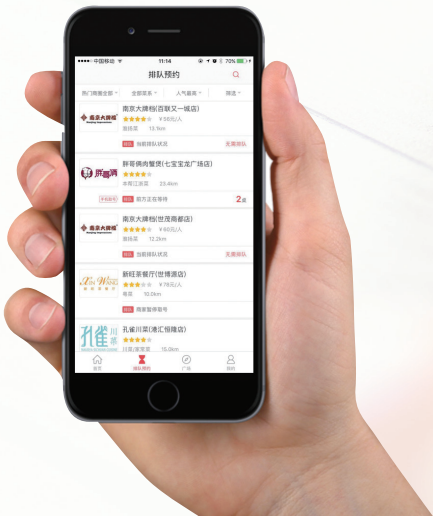
고객과 식당이 모두 만족하는 '식당예약 앱(APP)'

베이징지사

식당이용에 스마트폰 앱 이용 증가

- 최근 중국에서는 '식당예약 앱(APP)'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. '메이웨이부용등(美味不用等)'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예약 앱(APP)으로, 최근 중국 시장점유율 1위의 맛집 검색 앱 '따중디엔핑(大众点评)'과 검색포털 '바이두(百度)'로부터 5억 위안(한화약 850억 원)의 투자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.
- 중국 요식업시장에서 예약·주문·배달·결제의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 앱은 이미 마케팅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.

메이웨이부용등의 예약앱 화면



고객과 식당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

- 현재 '메이웨이부용등(美味不用等)'과 같은 예약 앱에는 이미 200여개 도시와 2만 여개 식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하루에 약 600만 건의 예약을 처리하고 있고 매달 약 8,000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터치 한번으로 식당을 예약하는 온라인예약 앱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최적의 식당을 추천하며,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3D로 제공해 자리를 고를 수 있으며, 온라인으로 주문에서 결제까지 가능하다.
-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, 비용을 절약해 주는 동시에 매장 접근성을 높이고 각 식당의 장점을 홍보함으로써 식당의 경영효율과 수익성 제고에도 공헌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'메이웨이부용등(美味不用等)'에 등록된 업체는 방문객과 테이블 회전율이 평균 10%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식당 앱은 한국식품 홍보에 유효한 홍보수단

- 수많은 중국인들이 사용중인 식당예약 앱은 한국 식품 홍보에 있어 효과적인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.
- 특히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료나 주류 등은 중국 식당예약 앱에 배너광고나 간접광고를 함으로써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율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